

2018년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2018년 10월 25일(목)~26(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주최 / 주관 (사)한국해양학회

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션테크(주)



한국해양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years in Gamak Bay, South Korea

이연균¹, 정다운¹, 김용원², 박정준³, 이정식⁴(¹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²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³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⁴전남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GP12 해안지역의 지상기준점용 드론 활용을 위한 예비 테스트
정의영¹, 박준용¹, 정의용¹, 방설희¹, 이희우², 홍재영²(¹한국해양과학기술원, ²(주)케바드론)
- GP13 3D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인공유물 탐사
정주봉, 박찬호, 신정균(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탐사시스템연구실)
- GP14 흰발농게 서식지의 퇴적환경 비교 : 전북 군산시 선유도 갯벌과 경남 남해군 이락사 갯벌
이명선¹, 유은선¹, 김형섭², 장진호¹(¹목포대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천해퇴적학연구실¹, 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미세조류생물공학연구실²)
- GP15 남극 로스해 중앙부지에서 채취된 코어 RS15-LC42의 점토광물 조성
하상범¹, 이민경², 이재일², 유규철², 김성한², 구효진³, 조현구³, 김부근¹(¹부산대학교 해양학과, ²극지연구소 극지고환경연구부, ³경상대학교 지질과학과)
- GP16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기후전이기간동안의 유기질미화석 산출 특성을 통한 동남한국대지 고기후 및 고해양환경 복원
김용미^{1,3}, 이상현^{1,2}, 김길영³, 이은미^{2,4}(¹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유자원공학과, ²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 ³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⁴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과)
- GP17 Morphodynamics and sedimentary processes in arctic transitional environments: Dicksonfjorden, Svalbard
김도형, 조주희, 최경식(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극 로스해 중앙분지에서 채취된 코어 RS15-LC42의 점토광물 조성

하상범¹, 이민경², 이재일², 유규철², 김성한², 구효진³, 조현구³, 김부근¹
¹부산대학교 해양학과, ²극지연구소 극지고환경연구부, ³경상대학교 지질학과

아래번호를 이용한 2015년 탐사동안 남극 로스해의 중앙분지에서 11.75 m 길이의 자이언트 피스톤 코어 RS15-LC42를 획득하였다. 퇴적물의 기원지 추정을 위해 퇴적물 특성(대자율, 입도) 및 점토광물을 분석하였다. 코어 퇴적물의 암상은 전체적으로 층리구조가 뚜렷한 녹회색의 구조 연니와 퇴적구조가 없고 간헐적으로 IRD가 포함되거나 생물 교란이 우세한 밝은 회색의 사질 점토로 구성된다. 구조 연니층은 대자율과 모래 입자 함량이 낮은 반면, 사질 점토층에서는 대자율과 모래 함량이 증가한다. 점토광물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라이트(56.0~93.3%)가 가장 우세하며, 녹니석(2.1~21.8%), 스�멕타이트(0.3~28.1%), 그리고 카올리나이트(0.4~9.1%)의 순서로 세립퇴적물을 구성한다. 구조 연니층은 상대적으로 스�멕타이트(4.0%)와 카올리나이트(2.7%) 함량이 낮고 일라이트(79.8%)의 함량이 높지만, 사질 점토층에서는 스�멕타이트(10.3%)와 카올리나이트(4.8%) 함량은 증가하고 일라이트(71.3%)의 함량은 감소한다. 녹니석 함량의 경우 630 cm에서 매우 낮지만 전체적으로 퇴적물의 암상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층리구조가 뚜렷한 퇴적층에서 일라이트가 우세하게 포함된 세립퇴적물은 아마도 대륙붕단까지 확장된 서남극 빙상에 의해 남극종단산맥의 기반암으로부터 빙상 아래의 용빙수에 의해 로스해에 공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질 점토층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스�멕타이트의 기원지는 로스해 서쪽의 빅토리아 연안의 화산암 지역이며, 빅토리아 연안으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에 의해 공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스�멕타이트와 함께 증가하는 카올리나이트는 서남극 빙상의 후퇴로 연구 지역에 동남극 빙상의 영향이 증가하여 로스해 빙상의 서쪽에 분포하는 퇴적암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구 코어의 빙하기-간빙기 구분에 필요한 연대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원지 변화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추후 연대모델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